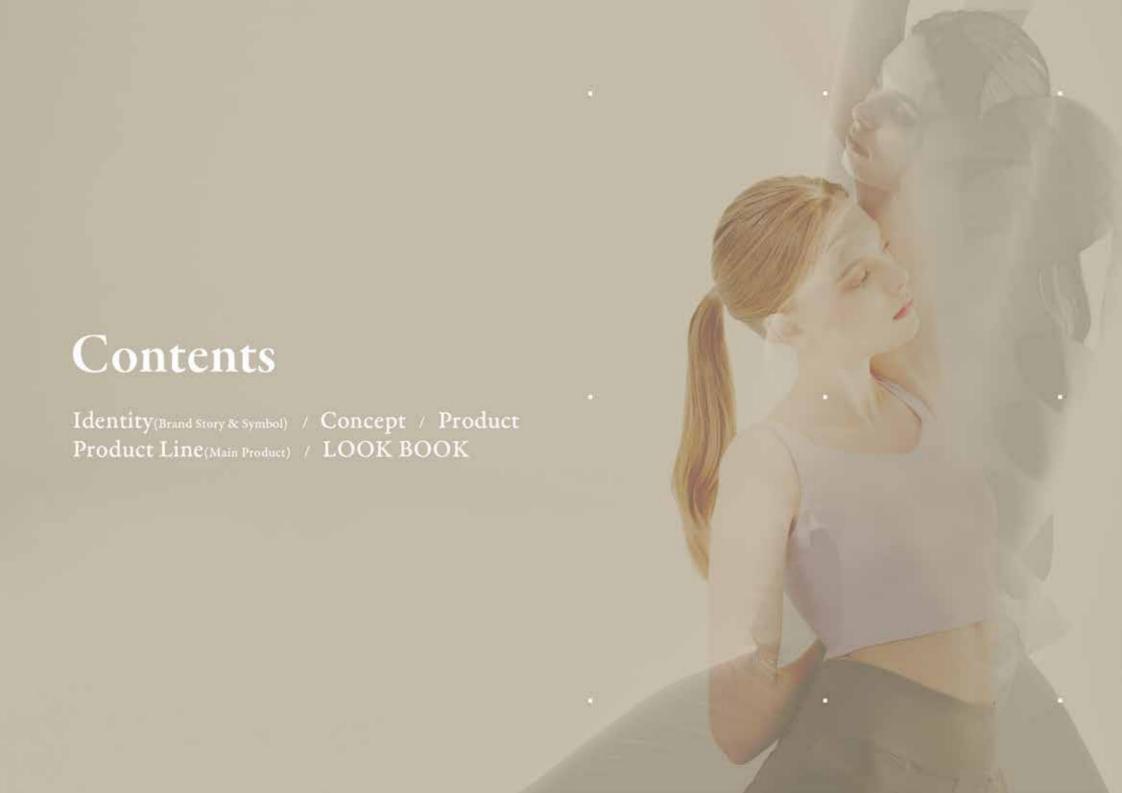


CINDY



EVERY DAY EVERY WHERE FOR MY SELF







Brand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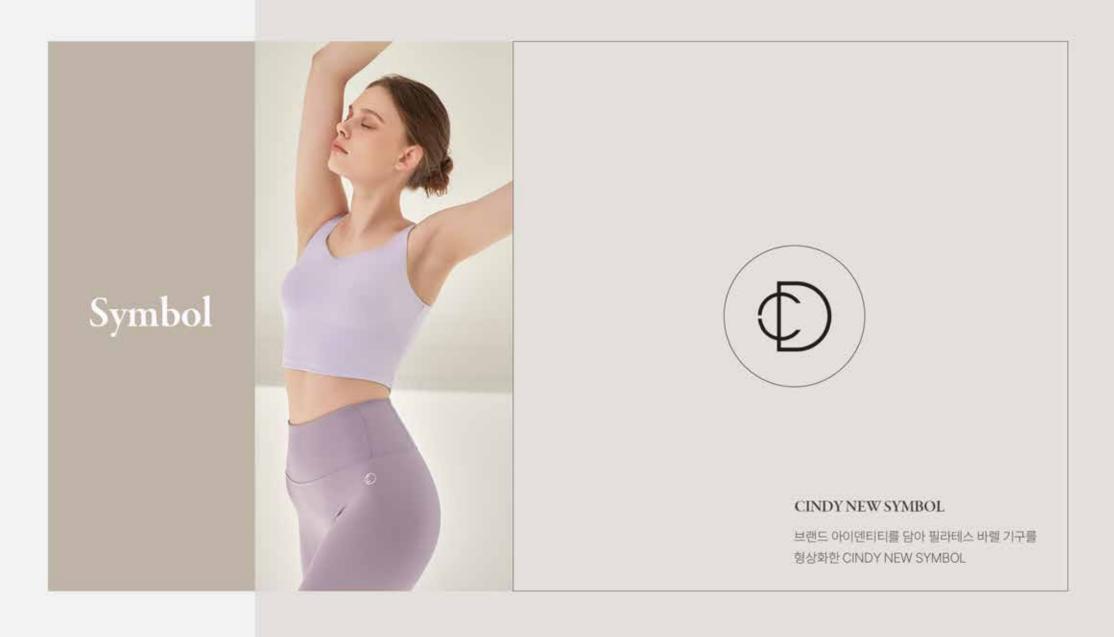
1999년 첫 선을 보인 이랜드리테일 패션PB 부문이 2022년 법인 분리를 통해 '이랜드 글로벌' 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표 브랜드 신디(CINDY)를 시작으로 아동/여성/남성/캐주얼/내의/명품 복종으로 구성된 이랜드 글로벌은 독자적 패션 브랜드 사업을 큰 축으로 40여개 브랜드, 1400여개 매장에서 연 매출 6천억 규모의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브랜드 발굴을 통한 직소상 카테고리 확장을 성장 동력으로 이랜드글로벌은 2030년 연 매출 1조의 NO.1 패션 컨텐츠 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Love my body. Enjoying a health life Athleisure Lifewear





Product Line(Main Product)



Product Line

Performance

온전히 나의 몸에 충실해야 하는 당신의 Performance time을 위해,

자체 기술력과 노하우로 완벽한 핏 &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Product Line

Athleisure

역동적이고 활기찬 당신의 라이프에 맞는,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차별화된 athleisure line을 선보입니다.





허리말림 없는 편애깅스 /Leggings

자체개발, 특허 출원한 사다리꼴 패턴으로 허리 말림이 없이 편안하면서 몸매 보정 가능한 레깅스



활동을 도와주는 브라 서포트 탑 / Bra top

여성스러운 파스텔컬러, 스트랩디테일 가슴볼륨은 살려주고 군살은 가려주는 최적의 핏



스타일을 놓치지않는 커버업상의 / Cover up

자유롭게 스타일링 가능한 기능성 소재의 커버업

Product Line / Athleisure



일상에 더 자유로운 편애조거 /Jogger pants

시즌별 맞춤 소재 우븐 팬츠 조거핏, 일자핏 등 트렌드에 맞는 웨어러블한 팬츠



기능최적, 시즌별 아우터 / Outer

레저활동에 적합한, 기능성 소재 + 트렌디컬러 + 트렌디 디테일



친환경 에코 소로나 티셔츠 / Eco T-shirts

환경을 생각한 리사이클링 소재 운동에서 일상까지 웨어러블하게

편애깅스 텐션레깅스

자체 개발 특허 황금비율 사다리꼴 패턴으로

압박감 없이 흘러내림 없이 운동에만 집중 해보세요.

CINDY

Love my body. Enjoying a health life Athleisure Lifewear



편애깅스 조거핏

황금비율 사다리꼴 풀밴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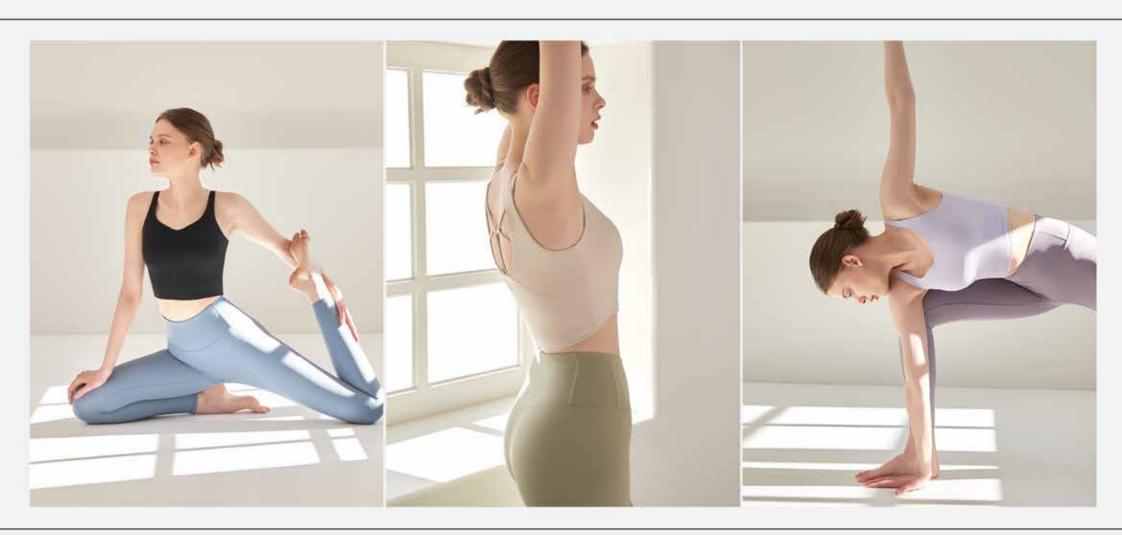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360도 풀밴딩으로 갑갑함 없이 움직이 한결 편안합니다.

CINDY

Love my body. Enjoying a health life Arhleisure Lifewear



LOOK BOOK





Love my body. Enjoying a health life Athleisure Lifew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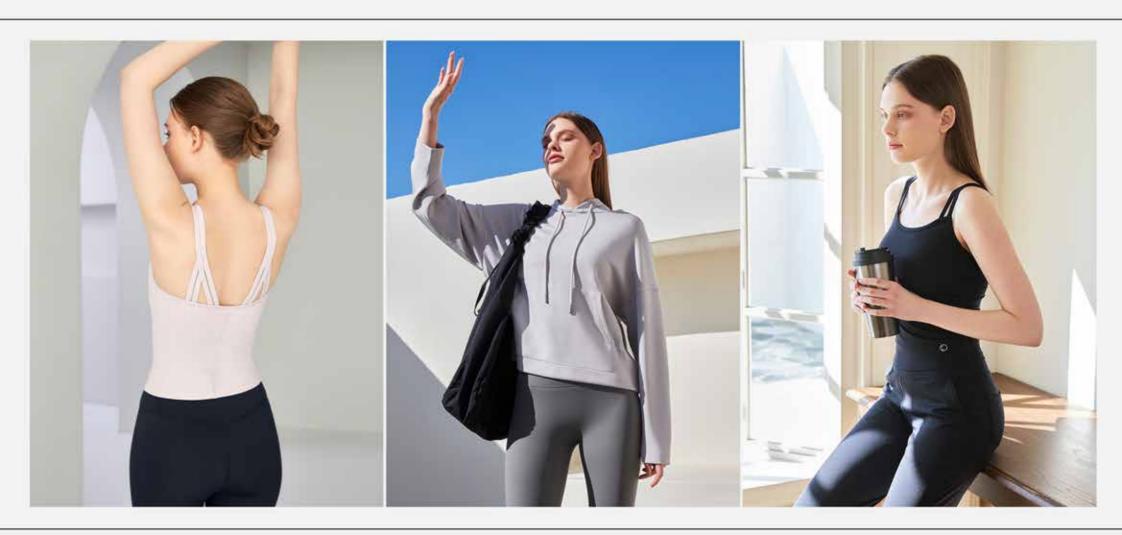
LOOK BOOK





Love my body. Enjoying a health life Athleisure Lifewear

LOOK BOOK





Love my body. Enjoying a health life Athleisure Lifewear

CINDY

Love my body. Enjoying a health life Athleisure Lifewear



Contact

Lee Hye Seon MD/Directing

LEE_HYESEON@eland.co.kr

15-,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뉴데일리경제

이랜드글로벌 '신디', 내년 50개 매장 목표... 브랜드 확장 본격화

부산에 신규 매장 오픈... 전국에 확산 '박차' 롯데 잠실점 명동점 등 올해에만 7개점 오픈 월별 매출 전년 대비 평균 50% 성장

기사입력 2023-10-31 09:49:04 | 최종수정 2023-10-31 10:17:09 | 검보라 기자 | bora6693@hanmail.net



▲ ⓒ이랜드글로벌

애슬레저룩(athleisure)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이랜드글로벌의 '신디'가 내년 5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브랜드 확장 본격화에 나선다.

신디는 이랜드리테일의 패션 브랜드 운영 법인 이랜드글로벌에서 전개하는 애슬레저 라 이프웨어 브랜드이다.

신디는 오는 11월1일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신규 매장을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최 근에 오픈한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롯데 영플라자 명동점에 이어 올해 7번째 신규 매장이다.

신디는 '일상 애슬레저룩'으로 입소문을 타며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월별 매출이 전년 대

23, 10, 31, 오후 3:2

Save Internet 뉴데일리

비 평균 50% 성장했다. 매출 1위 매장인 NC강서점은 월매출이 전년대비 80% 증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매장은 신디의 FW 신상품인 'CINDY WARM'과 함께 캐리오버(시즌 구분 없는 스테디셀러) 상품인 '편애깅스', '서포트 탑' 등 중심으로 진열돼 눈길을 모을 예정이다.

편애깅스는 신디의 시그니처 레깅스로, 출시 후 누적 50만장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상품이다. 이번 신규 매장에서는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퍼포먼스 라인을 강화했다.

이랜드글로벌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한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장은 고객이 신디의 제품을 편안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며 "신디가 애슬레저룩 분야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국에서 신규 매장을 선보이며 고객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hanmail.net)

23. 10. 31. 오후 3:31

어패럴뉴스 기사 인쇄하기

23.10.31. 오후 3:36

APN

인쇄하기

취소

이랜드글로벌 '신디', 부산에 신규 매장 오픈

발행 2023년 10월 31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사진=신디

[이패럴뉴스 정민경 기자] 이랜드리테일(대표 윤성대)의 패션 브랜드 '신디(CINDY)'가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신규 매장율 오픈한다. 산다는 이랜드리테일의 패션 브랜드 운영 법인 이랜드글로벌에서 전개하는 애슬레저 라이프웨어 브랜드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매장은 신디의 FW 신상품인 'CINDY WARM'과 함께 캐리오버(시즌 구분 없는 스테디셀러) 상품인 '편 매경스', '서포트 탑' 등 중심으로 진열돼 눈길을 모을 예정이다.

편애강스는 신디의 시그니처 레깅스로, 출시 후 누적 50만장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상품이다. 이번 신규 매장에서는 필라테 소, 요가, 헬스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퍼포먼스 라인을 강화했다.

한편, 신디는 '퍼포먼스 라인', '애슬레저 라인' 두 가지를 메인 컬렉션으로 일상 속에서도 연출할 수 있는 애슬레저룩을 선보이고 있다.

'퍼포먼스 라인'은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 완벽한 핏과 착용감을 선사하며 ▲편애깅스, ▲서포트 탑, ▲커비업 상의 등의 제품 이 인기다. '애슬레저 라인'은 활기찬 일상에 맞는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제품들로 대표 상품은 ▲편애조거, ▲시즌별 아 우터, ▲소로나 티셔츠(친환경 소재로 만든 티셔츠) 등이 있다.



가성비 의류 뜨자 …'패션 PB' 힘쏟는 이랜드

정술기 기자 seulgi@mk.co.kr

입력: 2023-06-19 17:20:59 수정: 2023-06-19 17:25:29



애슬레저 브랜드 '신디'의 제품등, 이랜드글로벌

#직장인 A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족과 함께 NC백화점 강서점을 방문한다.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분기마다 옷을 사주는데, 아동복 자체브랜드(PB) 밀리밤 등에서 아이들 옷을 사고 본인이나 아내가 걸칠 옷을 사도 20만원이면 충분하다. "백화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브랜드 옷이 었다면 한두 벌밖에 못 샀을 것"이라며 A씨는 만족하고 있다.

고물가에 패션도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이랜드글로벌이 가성비를 갖춘 PB 제품을 앞세우고 있다. 본래 NC백화점 등에 가야 살 수 있던 옷을 소비자가 다양한 매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규모 를 확 키우겠다는 방침이다.